

(최우수상) Heo : 독점된 AI

소프트웨어학부 김민

원작

허생전

기획 의도

조선 후기에 연암 박지원이 당시 조선의 현실을 풍자하기 위해 한문으로 쓴 풍자 소설 '허생전'의 허생을 유망한 AI 스타트업의 독점자로 재탄생시킨다. 현실 세계와 미래 세계에서 AI가 가질 능력과 이를 독점하고 악용하려는 대기업에 대해 비추어보고자 한다.

시놉시스

유명 AI 스타트업 '미래'의 창업자 허생은 기존의 생성형 AI보다 더 강력하고 절대적인 인공지능 'Heo'의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 AI는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까지 모방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무리한 개발 투자로 인해 '미래'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허생은 자신의 모델의 미래를 보았지만, 현실은 그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했다. 여러 차례 투자를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투자 제의를 거절했다. 허생에게 남은 것은 굶힐 수 없는 자존심과, 존폐의 위기에 놓인 '미래'뿐이었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국내 거물급 대기업 'BeH'를 찾아갔다. 의외로 'BeH'의 회장 변혜준은 허생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고, 투자금과 함께 M&A 합병 인수를 제안했다. 간절히 바란 기회였지만, 받아본 계약서에는 어딘가 꺼림칙한 내용들이 존재했다. 변 회장의 제안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현재가 보이지 않는 허생의 '미래'는 선택권이 없었다. 허생의 'Heo'는 'BeH'와 손을 잡고 개발에 들어갔다. 드디어 허생의 간절한 꿈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인 순간, 변 회장은 본색을 드러내는데...

스토리

[기] 유명 AI 스타트업 '미래'의 창업자 허생은 기존의 AI를 뛰어넘는,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까지 모방할 수 있는 절대적 AI 'Heo' 개발에 몰두한다. 그러나 개발 비용으로 인해 회사는 금전적 위기에 처하고, 투자를 찾아 헤매던 허생은 마지막 희망으로 대기업 'BeH'를 찾아가는다.

[승] 'BeH'의 회장 변혜준은 허생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며, M&A 합병 인수를 포함한 투자를 제안한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Heo'의 단독 계약과 정보 전수 제공, 저작권 책임자의 권리 이양에 대해 불리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거부 할 수 없는 재정적 위기에 허생은 변혜준 회장의 계약을 받아들인다.

[전] 결국 'BeH'와의 합병을 선택하며, 'Heo'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변 회장은 그의 진짜 의도를 드러낸다. 그것은 세상에 모든 정보를 'Heo'를 활용하여 지배하려는 것,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조작하여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다. 자신만 조용히 하면 부와 명예를 유지할 수 있다. 계속 스

스로 발전하는 'Heo', 지금 끝내지 않으면 세상은 'BeH'의 산하에 들어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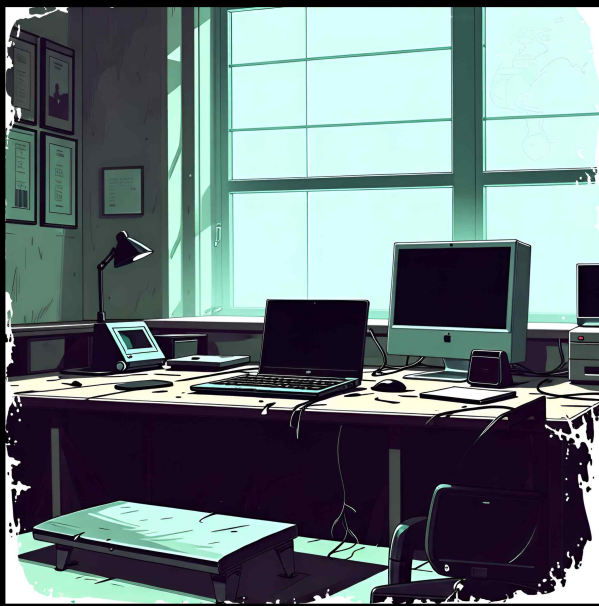

[결] 모든 것을 두고 잠적한 허생, 'BeH'는 자신의 계획대로 'Heo'를 배포하기 시작한다. 세상에 모든 것들이 'BeH'의 아래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허생의 빈 책상에는 허생의 기기들만이 외로이 남아 꺼져 있었다. 더 이상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사무실, 꺼져있던 허생 자리의 컴퓨터는 스스로 부팅하기 시작한다.

작품의 기대 효과

'Heo: 독점된 AI'는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까지 모방할 수 있는 AI 'Heo'를 둘러싼 이야기를 통해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가져올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은 AI 기술의 진보가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기술 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스토리보드(Storyboard)

Cut	Picture	Caption
24		<p>[#S24. BeH 본사 회의실]</p> <p>분위기 : 긴장감이 고조되며, 정적만이 공간을 채움.</p> <p>화면 전환 및 카메라 이동 : 화면은 허생의 떨리는 손과 BeH 회장의 냉정한 표정 사이를 교차하며 전환된다.</p> <p>대사 :</p> <p>허생 : (떨리지만 진중한 목소리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래'의 창업자, 허생입니다.</p> <p>BeH 인공지능 전략부사장 : (건조한 목소리로) 인사는 그 만두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단호하게) '미래'에 왜 투자해야 하는지 설명해보세요.</p> <p>허생 :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저희 회사의 이름과 같이, 저희는 모든 세상의 미래를 바꾸고자 합니다.</p> <p>BeH 인공지능 전략부사장 : (비판적인 목소리로) 모든 기업이 그런 큰 꿈을 꾸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메리트가 되지 않습니다.</p>
74		<p>[#S74. BeH 본사 회의실]</p> <p>분위기: 조용하고 엄숙함이 감돈다.</p> <p>화면 전환 및 카메라 이동: 카메라가 천천히 허생에게 zoom in하면서, 그의 뒤로 그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오버랩되며 나타난다. 그의 고민이 해결되는 순간, 과거의 장면들이 사라지고 카메라가 다시 zoom out하며 허생을 전체적으로 비춘다.</p>

		<p>대사: 허생의 아내: (एको, 목소리만, 단호하게) 우리 이제 이혼 해. 애도 없고, 당신과는 더 이어가면 나 미칠 것 같아. '미래' 직원 1: (एको, 목소리만, 울먹이며) 사장님, 저는 이제 '미래'에 제 미래를 걸 수 없을 것 같아요. 허생의 동창 1: (एको, 목소리만, 거만하게) 어이, 우리 나이에 이 정도가 기본이지 않나? 허생: (머리를 저으며) 계약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변혜준: (얇은 미소를 지으며) 올바른 결정을 하셨습니다. 회장이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죠. 당신이 태블릿에 서명을 하자마자 확인되는 대로 입금될 겁니다. 허생: (무언가 걸리는 듯이) ...감사합니다. 회장님. [#S139. '미래' CEO실]</p>
139		<p>분위기: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상태</p> <p>화면 전환 및 카메라 이동: 허생에게 서서히 zoom in하면서 인터넷 기사를 보여주고, 다시 허생에게 돌아와 그의 한숨 쉬는 모습을 포착한다.</p> <p>대사: 기사: "'BeH', 모든 사람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다. 네티즌들..." 허생: (독백, 회피적인 말투로) "...이게 맞을 거야. 이것이 진정한 정의이고, 내가 바란 바일 거야. 나는... 이걸로 충분해. 이게 내가 원하던 바야...원했고, 나만 모르면 돼... 될 것이야... 될 거야."</p>
244		<p>[#S244. '미래' CEO실]</p> <p>분위기: 음침하고 어두움</p> <p>화면 전환 및 카메라 이동: 천천히 허생의 컴퓨터로 zoom in한다. 이 장면과 함께 회장의 계획 승인 장면, 국민들이 무심코 영상을 보는 장면이 번갈아 가며 나타난다.</p> <p>대사: 직원 2: (책상을 바라보며) 허 대표님.. 언제 오시려나요.. (장면이 바뀌며) 뉴스 앵커: (무미건조하게) 이번 'BeH'와 개인 작가 '이유민'씨의 저작권 분쟁에서 배심원은 'BeH'를 지지하였습니다.. (장면이 바뀌며) 비서: (격식을 차리며) 회장님, 들어가겠습니다. 변혜준: (무심하게) 네, 들어가세요.</p>
245		<p>[#S245. '미래' CEO실]</p> <p>분위기 : 조금씩 밝아진다. 긴장됨</p> <p>화면 전환 및 카메라 이동 : 천천히 허생의 컴퓨터를 zoom in 한다.</p> <p>대사 : 없음</p>